

Gerhard Ritter教授와 獨逸 宗教改革史研究

洪 致 模

I

現在 筆者가 會員으로 所屬하고 있는 美國 宗教改革史 研究所(American Society for Reformation Research Center)로부터 1967年度 學會誌를 받아들고 無心히 表紙를 보았을 때 6名의 編輯者 中에서 Gerhard Ritter教授의 이름이 맨 위에 있는 것은 별로 다른 바 없었으나 이름 옆에 十字架가 아로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어쩐지 豫感이 異常하였다. 表紙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가 Heiderberg大學의 歷史學 教授로 編輯者의 한 사람인 Heinrich Bornkamm 教授의 吊辭가 실려있지 않은가. 發展 途上에 있는 韓國 西洋史學界에서는 美國과 英國의 歷史學界의 研究動向에 關해서는 比較的 鏡像한 편이나 獨逸 歷史學界의 研究動向에 關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實情이다. 多幸히 獨逸에서 歷史學을 專攻하고 돌아온 同學 金相泰先生이 獨逸史學의 現況을 紹介한 論文이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다.⁽²⁾ 金教授는 이미 「史學誌」에다 「Gerhard Ritter教授와 獨逸史學」이라는 題目으로 Ritter教授의 生涯와 研究 業績을 紹介한 바 있으므로 多少 重複되는 感이 없지는

(1) *Archiv für Reformationgeschichte* (Jahrgang 58) 1967 Heft 2

1938年 Gerhard Ritter教授는 Otto scheel教授와 Heinrich Bornkamm教授와 더불어 獨逸 宗教改革史學會에서 發刊하는 學會誌의 편집자로 취임하였다. 途中 世界 第二次大戰으로 因하여 學會의 活動이 中斷되었다가 1951年 全世界의 宗教改革史家들의 呼應과 聲援下에 1951年 다시 學會誌를 刊行하게 되었다. 이때 美國의 歷史家들이 積極的으로 參加함으로써 現在는 主로 獨逸과 美國이 共同으로 學會를 運營하면서 學會誌를 刊行하고 있다.

(2) 金相泰 教授는 앞서 簡略하게나마 西洋史論 Ⅳ·Ⅴ合併號(1967) p. 93~94에서 「獨逸 史學界動向」을 소개한 바 있으며 史學研究 19號(1967)에서는 「第一次世界大戰時의 宰相 베트란 홀백의 政治的 役割」을 그리고 「第一次世界大戰의 目的과 戰爭責任問題—Fritz Fischer의 提제를 中心으로—」를 金成植教授 華甲記念 論叢에 發表하였다.

않으나 다만 筆者는 本稿에서 Ritter教授의 多様な 研究經歷의 한 分野를 차지하고 있는 宗教改革史研究를 간단하게 소개함으로써 Gerhard Ritter教授에 對한 追慕를 代身하고자 한다.

II

Gerhard Ritter教授(1888. 4. 6~1967. 7. 1)는 獨逸 中部地方에 있는 Bad Zoden에서 神學者요 牧師의 아들로 出生하였다. 젊은 時節은 主로 München 大學과 Leipzig大學 그리고 Heiderberg大學에서 修學하였다. 大學을 卒業한 젊은 Ritter 앞에는 祖國의 運命을 左右하는 第一次世界大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東部戰線과 西部戰線을 轉轉流流하던 끝에 祖國의 敗戰이라는 쓰라린 現實을 몸스 體驗하면서 다시 學園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 Ritter教授는 Heiderberg大學 當局으로부터 Heiderberg大學史를 執筆해 달라는 請願을 받아들여지게 되어 終戰後 Heiderberg大學의 私講師로서 教授生活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後 1924년에는 Hamburg大學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음해인 1925년에는 Freiburg大學의 歷史學 正教授로 招請받아 그곳으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에 停年退職할 때까지 줄곧 同大學의 講壇을 지켰다. Freiburg大學에서 奉職하고 있던 途中 第二次世界大戰이 발발하여 一時的으로 大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Ritter教授의 全生涯에 있어서 二次大戰 末期 約 二·三年間은 生과 死를 오르내리는 限界狀況 속에서 苦悶을 계속하던 時期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即 Karl Goelderer을 中心한 所謂 1944年 7月 20日 Hitler暗殺未遂事件에 關聯되었던 것을 말한다. 그는 同志들과 같이 秘密警察에 逮捕되어 Berlin 強制收容所에 監禁되었다가 1945年 4月下旬 소련軍의 Berlin 進駐로 말미암아 九死一生으로 生命의 危機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Ritter教授가 이 事件에 가담하기 前 이미 그의 獨子를 러시아戰線에서 잃어버렸는데 이때 婦人은 新約聖書의 에베서 5章 20節(번사에 우리 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을 암송하면서 슬픔을 단뎠다고 한다.⁽³⁾

(3) AFR (1967) Heft 2. s. 145~148을 參照할 것.

Ritter教授는 二次大戰 末葉 祖國을 爲해서 나치스 侵略軍에 과감하게 抵抗하다가 刑場의 이슬로 사라져 간 佛蘭西의 社會經濟史家였던 Marc Bloch教授와 더불어 所謂 抵抗史學의 旗手로서 世界의 모든 知性人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意味에 있어서 筆者는 Ritter教授의 抵抗思想을 한층 더 높이 致賀하고 싶다. Marc Bloch教授의 경우에 있어서는 西佛蘭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勇當 祖國을 守護한다는 義務感에서 祖國愛를 發揮하는 行動을 取했다고 할 것 같으면 Ritter教授는 正義感에 立脚하여 祖國의 統治者 Hitler에게 反旗를 들고 抵抗함으로써 그것이 곧 祖國을 救援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라고 確信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抵抗運動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Marc Bloch教授는 프랑스 知性人의 精神的 貧困과 無力함을 歎息한 나머지 늙은 몸인데도 不拘하고 銃을 들었지만 Ritter教授의 心情 또한 그와 못하지 않을 정도로 獨逸의 悲劇이요 世界人類를 破滅의 直前까지 끌고 갔던 軍國主義에 對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如何든 이 두 歷史家는 모두가 소용돌이치는 歷史의 한 복판에 직접 뛰어들어감으로써 祖國을 救援하고자 自己의 生命을 正義와 良心의 祭壇에 바쳤던 것이다. Marc Bloch教授는 祖國의 解放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라져 갔지만 多幸히 Ritter教授는 不死鳥처럼 살아 남아서 作故하기까지 獨逸의 歷史學界를 再建하는 한편 歷史研究과 著述과 講演에 餘念이 없었다. Ritter教授는 Ranke以後 Meinecke教授(1863~1954)를 계승한 正統史學의 大家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獨逸 福音主義教會에 屬한 長老(Elder)이며 信仰人이었다. 그의 信念과 行動은 곧 學問과 一致되는 것이었다.

III

Ritter教授의 研究經歷은 매우 多樣的인 同時에 多產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著書는 무려 40권이 넘고 論文만 하더라도 約 200篇이 넘는다. 이것은 그의 學問에 對한 情熱과 天才의 努力의 結果를 과시하는 것이다. Ritter教授의 著書와 論文을 分類해 볼 것 같으면 대체로 4分野로 區分된다. (1) 政治 및 政治思想史 (2) 思想史 및 歷史理論 (3) 文化史 (4) 宗教改革史 以上 네가지로 區分한 것 중

에서 筆者는 Ritter教授의 宗教改革研究에 關한 것만을 대충 紹介하기로 한다. ⁽⁴⁾

Gerhard Ritter教授가 宗教改革史 및 Luther研究에 着手한 時期는 매우 이른 편이다. 卽 Ritter教授는 Heiderberg大學에서 工夫할 때 Hermann Oncken教授의 影響을 받아 近代 政治史研究가 그의 歷史研究의 中心 課題였다. 當時 Meinecke의 「世界市民主義와 國民國家」(1907)가 發刊되어 젊은 Ritter에게 깊은 印象을 주었지만 그의 研究方向을 規定짓지는 못하였다. Oncken教授의 指導下에 처음으로 쓴 論文(著書)은 「Die Prevlische Konservativen und Bismarcks deutsche Politik. 1853~1876」(1913) 卽 普러시아의 保守主義와 비스마르크의 獨逸政策이었다. 그러나 神學者의 아들인 Ritter의 精神的 遺産 속에는 宗教改革者들의 精神이 強하게 흐르고 있음을 感知한 Oncken教授는 그에게 宗教改革史를 研究할 것을 권하였다. 이것이 動機가 되어 그의 歷史研究의 第二의 課題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25년에는 「Luther-Gestalt und Tat (Luther, 그의 모습과 行爲)」를 發表함으로써 宗教改革史研究에 本格的으로 着手하였던 것이다.

Ritter教授의 Luther研究는 現在 獨逸에서 權威 있는 업적의 하나로 指目되어 있거니와 1925年 以來 版을 거듭하여 現在 10版에 육박하고 있다. Ritter教授는 Luther研究에서 改革運動의 原因과 經過를 區分하고 있다. 卽 Luther가 그와 같은 과감한 行動을 取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個人的 宗教體驗(信仰體驗)을 통해서 얻어진 信念의 結果라고 強調하는 한편 일단 改革運動이 始作되어 그것이 展開되는 過程에 있어서는 當時 神聖 로마帝國의 複雜하고 미묘한 政治的 情勢가 宗教問題와 서로 얽혀 돌아감으로써 Luther의 宗教改革運動에 어느 정도 有利하게 展開되었다는 것이 Ritter教授의 見解다. 卽 그는 宗教와 政治의 二次元의 緊張(Tension)關係에서 宗教改革運動이 進行하고 있는 모습을 엿보려고 한

(4) Ritter教授가 쓴 著書 가운데서 宗教改革史에 直接으로 關係가 되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Luther-Gestalt und Tat*. 1925.
 2. *Erasmus und der deutsche Humanistenkreis am Oberrhein*, 1937.
 3. *Die Weltwirkung der Reformation*, 1941.
 4. *Die Kirchliche und staatliche Neugestaltung Europas. 1494~1618*, 1941.
- 이것은 戰後 題目を 다음과 같이 變更하여 다시 出版하였다.
Die Neugestaltung Europas im 16 Jahrhundert, 1950.

다. 이와 같은 研究方法은 이미 Leopold von Ranke의 古典의 研究를 通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니와 오늘날 歷史家들이 再試圖하고 있는 研究方法이다. 그러므로 Ritter教授는 Ranke의 研究方法를 發판으로 삼기는 삼의 Ranke의 獨逸的인 좁은 視野에서 벗어나서 中世文化의 全體의 崩괴와 더불어 그것에 隨伴해서 發生한 政治的 經濟的 諸 激變 속에서 Luther의 모습과 행위를 觀察함은 勿論 宗教改革運動의 多樣的인 모습을 考察하면서, 改革運動의 固有性을 浮刻시키는 데 全力을 기울였던 것이다. 한 人間의 信仰의 決斷에 依해서 發生한 宗教改革運動이기는 하지만 일단 運動이 始作된 後에는 政治的 要素가 宗教改革運動의 性格과 方向을 決定짓는데 커다란 要因이 되었다고 Ritter教授는 披瀝하고 있다. 即「Die Kirchliche und staatliche Neugestaltung Europas 1494~1618」(1941)⁽⁶⁾에서 그의 解釋을 要約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即 오랜 準備期間을 거쳐서 겨우 封建制의 束縛과 舊習에서 벗어나 Europe舞臺에 登場하였던 英國, 스페인, 프랑스 등 諸國家에서 近代國民國家의 性格을 個別的으로 把握하고 르네상스時代의 이탈리아 諸國家들의 特性和 또한 將來性의 결됨 그리고 近代國民國家 形成過程에 있어서 獨逸의 後進性乃至 停滯性을 論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西歐列強이 저마다 霸權을 잡기 위한 鬪爭과 오스만 터어키와 全 Europe 사이에 벌어졌던 不斷한 緊張關係는 直接 或은 間接으로 Luther의 改革運動에 影響을 주었던만큼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오히려 政治的 要因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宗教改革運動과 르네상스運動의 動機와 志向을 同質的으로 解釋하려는 啓蒙主義의 歷史觀과 혼동시켜서는 안된다. Ritter教授는 Karl Holl教授의 立場을 支持하여 兩者間의 對立性과 異質性을 뚜렷하게 區分시키고 있다.⁽⁷⁾

그리고 Ritter教授는 當時 時代思潮를 形成하고 있던 人文主義思想과 神祕主義思想에 關해서 言及하기를 두 潮流가 初期에는 中世 로마教會에 對한 反教自的

(5) Leopold von Ranke; *Deutsche Geschicht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1839~1847)

(6) 第二次世界大戰後 上記한 著書를 *Die Neugestaltung Europas im 16 Jahr hundert*. 1950로 題目을 고쳤거나 Paul Joachimsen이 쓴 *Die Reformation. Als Epoche der deutschen Geschichte* (1950)와 더불어 獨逸의 宗教改革史 敘述에 있어서 이미 確固한 古典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7) 錢邊 茂: *ドイツ 宗教改革—精神と歴史—*(聖文會) 1967, p. 178~p. 258.

要素로서 成長하여 個別的으로 作用하여 오다가 Luther時代에 이르러 비르소 兩者가 結合됨으로써 하나의 調和된 「內的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⁸⁾

IV

Ritter教授는 1941年 「Die Weltwirkung der Reformation」(1941)을 出版하여 宗教改革史 研究의 深度를 한층 더 깊이 하였거니와 그의 研究는 世界學界에서 認定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獨逸 宗教改革史學會는 1938年 Ritter教授를 學會季刊誌의 編輯長으로 추대하였다. 今日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는 季刊誌 「Archiv für Reformationgeschichte」는 Ritter教授가 中心이 되어 世界的인 學術誌로 成長시켰던 것이다.⁽⁹⁾ 이 學術誌는 二次大戰으로 因하여 잠시 中斷되었으나 終戰後 1951년부터는 獨逸과 美國의 歷史家들이 合同하여 名實 共히 國際的인 宗教改革史學誌가 되었다. 獨逸과 美國의 歷史家들은 1958年 Ritter教授 生辰 70歲를 紀念하는 뜻에서 AFR誌 49卷을 記念論文集으로 出版하였다.

또한 1958年 역시 Ritter教授의 70歲를 紀念하는 論文集을 刊行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弟子들과 동료들의 論文을 모아 엮은 것이 아니라 教授 自身이 終戰後 執筆한 重要論文만을 모아서 收錄한 것이다. 「Lebendige Vergangenheit. Beiträge zur historisch-politischen Selbstbesinnung 1958. 331 s」(살아 있는 過去 歷史의 一政治的 自覺을 爲한 寄與) 이 論文集에는 世界的 著名한 歷史家들 234名이 連名함으로써 Ritter教授에 對한 그들의 뜨거운 感謝와 尊敬을 表示하였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Ritter教授가 抵抗史學의 旗手라고 하였거니와 抵抗史學이 內包하고 있는 根本精神은 果然 무엇일까? 筆者는 이 問題에 對한 所見의 一端을 提示함으로써 本稿의 끝을 맺고자 한다.

(8) Ibid, p. 226.

(9) 現在 獨逸에는 Tübingen大學內에 宗教改革史研究所가 設置되어 있으며 研究所長에는 Heiko Oicermann教授가 手苦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Missouri州에 있는 St. Louis市の Concordia 神學大學內에 宗教改革史研究센터(American Society for Reformation Research Center)가 設置되어 있다. 이 兩機關이 共同運營으로 「Archiv für Reformationgeschichte」를 年二卷씩 發刊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發展이 있기까지 그 背後에는 Gerhard Ritter教授의 숨은 功勞가 있는 것이다.

歷史家란 그 自身の 時代의 歷史를 단지 象牙塔 속에서 觀照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時代의 가장 깊은 深淵에서 呼吸하고 體驗하는 것이 보다 더 重要的 義務가 아닐까? 勿論 이와 같이 몸소 體驗하는 데 있어서 歷史家 自身이 時代의 制約을 받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不可避한 일인 同時에 또한 하나의 固有한 特徵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創造的 體驗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精神의 原動力이 결핍된다고 할 것 같으면 歷史家의 歷史敘述이란 한갓 生命이 없는 달라빠진 나무 껍테기에 지나지 않으며 無數한 事件을 단지 機械的으로 나열시키는 데 不過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歷史家가 어떤 傾向史家 乃至 新聞記者와 같이 行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家가 歷史敘述에서 恒時 問題가 되고 있는 「客觀性」이 歷史家의 基本精神이 되어야 한다는 命題가 나오기 마련이다. 여기서 客觀性이란 歷史家가 끊임없이 追求하여야 할 絕對的인 眞實性과 맑고 깨끗한 良心과 眞理만을 追求하고자 하는 崇高한 精神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歷史像은 歷史家의 判斷에 依해서 묘사된 意味解釋이므로 客觀的 歷史란 이미 사라져 간 現實의 斷片들을 意味있게 連結시키고 解釋한 것임으로 絕對的 客觀性이란 論議의 對象에서 除去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歷史家가 歷史敘述이란 作業을 進行시킬 때 歷史的 認識의 對象을 全部 理解하고 敘述하는 것으로서 그의 任務가 完遂되는 것이 아니고 無盡히 얽혀져 있는 歷史的 事實(事件) 속에서 오직 참된 것만을 確證하려는 批判的 精神을 所有함으로써만이 비로소 歷史家로서의 自己의 任務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여기서 참된 것만을 確證하고 批判하는 精神 그것이 곧 抵抗史學이 표방하는 學問的 精神의 一面이라고 보고 싶다. Ritter教授가 프랑스의 經濟史學派의 理論을 批判한 일이 있었음을 想起할 때 그의 歷史研究의 意圖가那邊에 있었던가를 可히 짐작할 수 있다. 단지 統計數字의 나열만으로 歷史的 事實을 全部 파악했다고 自負할 수는 없다. 歷史家가 한 時代를 몸소 겪을 때 良心的으로 現實과 과감히 對決하면서 어떤 바람직한 行動을 取하고자 努力하는 精神이 곧 抵抗하는 精神이

(10) 西村貞二: 戰後 ドイツの歴史學(1968) 및 “ドイツのミタリズム”(未來社) p. 133—p. 187을 참조할 것.

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歷史家가 지녀야 할 가장 高貴한 精神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精神을 바로 Gerhard Ritter教授의 全人格과 學問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Saget Dank allezeit für alles Gott, dem Vater, in dem
Namen Unseres Herrn Jusus Christus——(에베서 5장 20절)